

## 추원보본追遠報本の 중추가절仲秋佳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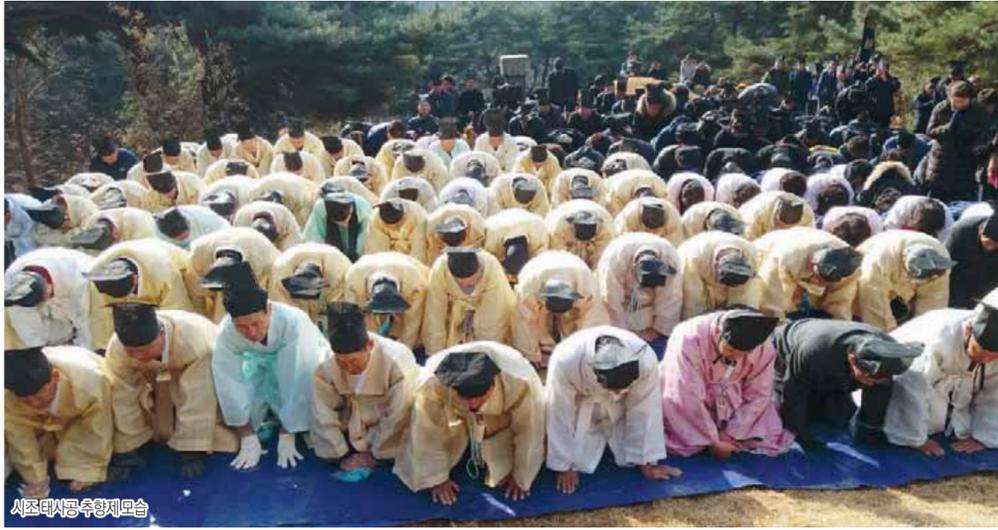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권해옥 회장

민족의 대명절 추석에 다가왔습니다. 권기 1091년 추석 대명절을 맞이하여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직도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어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작은 소모임까지도 자제 또는 취소가 일상사가 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지난 봄 시조 태사공에 대한 춘향제는 켈사고유(闕祀告由)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종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등 모든 행사와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시조태사공추향제모습

이번 추석명절에는 고향의 부모형제를 방문하고 조상님께 성묘하며 차례를 지내는 것조차 어려운 지경입니다. 100만 안동권문의 대표조직인 안동권씨 대종회는 추원보본(追遠報本)의 뜻을 받들어 송조(崇祖)이념을 확립하고 애족사상을 고취하며 후학을 계도함은 물론 사회윤리 배양을 종시(宗是)로 삼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우선시 하는 최고의 가치는 승조이념입니다. 특히 이번 추석명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추원

보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조들 역시 가뭄으로 인한 기근과 전염병, 흉수, 전쟁 등 갖은 재난에도 불구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1000여년이 넘도록 면면히 향사(享祀)를 받들어 왔습니다. 선조들은 시조 태사공에 대한 묘제를 돌보고 시조 태사공의 위대한 공덕을 기리기 위해 안동권문의 분향에 능동제사(국가민속문화재 제183호)를 1653년(효종4)에 건립했습니다. 그 간절한 뜻이 능동제사 추원루(追遠樓) 처마 끝에 서려 있습니다. 추원이라는 말의 출처는 소학(小學)에 나오는 추원보본(追遠報本)입니다. 추원보본은 조상의 은덕을 잊지 않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추모하며 자기의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시조 태사공의 천추만대의 유덕(遺德)을 추모하기 위한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은 1784년(정조8) 안동권문의 후손들이 경주 운곡에 천년송보(千年崇報)의 사당인 추원사(追遠祠)를 창건한 일입니다.

추원사는 우여곡절 끝에 운곡서원(雲谷書院)으로 중건 복원되었습니다.

이처럼 선조들은 시조 태사공의 공덕을 추모하고 안동권문의 역사와 일과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송조정신을 발휘하여 실천해 왔습니다. 적선지가(積善之家)에 필요

여경(必有餘慶)이라고 했던가요. 안동권문은 득성(得姓) 이후 1000여년 동안 구봉군(九封君)을 비롯하여 수많은 고관대작과 선비, 장군, 충신열사, 사상가, 경제가, 독립운동가, 법률가, 의사, 사업가 등 각 시대마다 끊이지 않고 이루어져 오고 있는 인물이 안동권문을 빛냈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가지와 잎이 무성하고 샘의 근원이 멀면 흐르는 강줄기 또한 깊고 넓듯이 시조 이래 여러 지파로 갈라지고 수많은 후손들이 천 가지 만 갈래로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시조 태사공의 후손입니다. 시조 태사공의 후손답게 어떠한 어려움도 병기달권(柄幾達權)의 지혜로 의연히 딛고 일어서서 서로 돈목(敦睦)하며 추원보본의 정신을 다시금 가다듬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예전처럼 각종 행사와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100만 족친 여러분께서 안동 능동제사 추원루로 구름같이 몰려와 시조 태사공의 향사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



안동 능동제사 추원루(追遠樓) 현판이다. 추원보본(追遠報本)은 조상을 추모하고 근본에 보답한다는 의미이다. 올해는 득성(得姓)한 지 1091년이 되는 해이다.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가을 추석명절을 맞아 안동권문의 추원보본의 송조정신이 자손만대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부모님이 더욱 그리워지는 추석 명절이다.

### 權門矜持 권문금지

孝友吾門繼代全 효우오문계대전  
 忠仁本分最優先 충인본분최우선  
 功高得姓過千載 공고득성과천재  
 德遂成名又萬年 덕수성명우만년  
 源遠流長聲望暢 원원유장성망창  
 根深葉茂衆孫繁 근심엽무중손번  
 世人莫道權無惡 세인막도권무악  
 受訓如山謹慎連 수훈여산근신연

우리 문중 효도 우애 대를 이어 온전하니  
 충과 인을 본분삼아 가장 우선 했다고  
 공이 높아 사성받고 천년이 지났으니  
 깊은 덕으로 이름을 이뤄 다시 만년 이으리  
 근원이 멀면 흐름이 길어 명성 인망 창달하고  
 뿌리 깊어 잎 성하니 많은 자손 번창했네  
 세인들은 권씨 중에 악인없다 말을 마오  
 받은 훈계 태산 같아 근신이 이어졌소

안동권씨대종회 고문 東峰동봉 권洪燮 권홍섭

### 9월 임원 선임 및 찬조금, 회비 납부 내역

#### <임원 선임>

이사 권석원(경기양주)

#### <찬조금>

권영한 고문(전 부총재) 1,000,000 이사 권오성(예천) 300,000  
 권순식(대구) 300,000

#### <회비>

부회장 권오실(전 교육장) 1,000,000 종무위원 권오길(경주) 200,000  
 권혁창(세무법인 화인 대표) 1,000,000 권영주(상주) 200,000  
 권기영(영등포 탐 부동산 대표) 1,000,000 권혁재(용산) 200,000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총 : 5,200,000원

안동권씨대종회

## 仲秋佳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100만 족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풍요로운  
 추석 되세요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 외 임직원 일동